



전북도와 전북농업기술원, 전북농협은 28일 서울 농협유통 양재유통센터에서 전북 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북 쌀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상품 '십리향'을 원료곡으로 하는 전북 쌀 광역브랜드 '예담채 십리향'의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전북쌀

## 전북농협, '예담채 십리향' 신상품 출시 예고 선포식

전북 쌀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쌀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농업기술원, 전북농협이 함께 손을 잡았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8일 서울 농협유통 양재유통센터에서 전북 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북 쌀이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상품 '십리향'을 원료곡으로 하는 전북 쌀 광역브랜드 '예담채 십리향'의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김중식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 김학주 전북농업기술원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판매농협 조합장과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 후 홍보 안내장과 사은품 등을 나눠주며 '예담채 십리향'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수도권의 많은 고객들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품 '십리향'은 전북농업기술원이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신상품 향미로 최고품질 호풍벼와 구수한 향이 나는 도화향 2호를 인공교배하여 만든 품종이다. 쌀알이 많고 신동진보다 늘씬하며 쌀 자체와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나고 찰기가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전북 쌀은 소비자가 뽑은 우수 브랜드에 29회나 선정되기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번 신상품 십리향 개발을 계기로 예담채 십리향쌀이 전북 쌀 가치제고와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은 "전북 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고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신상품 '십리향'이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농협과 함께 십리향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될 수 있도록 재배단지 확대와 재배매뉴얼 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담채 십리향쌀은 2020년 1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군산의 옥구·회현·대야농협에서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농협은 이번 신상품 '십리향'을 원료곡으로 한 '예담채 십리향' 쌀 출시를 통해 전북 쌀의 가치를 높여 전북 쌀 값 제고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중기 지원기관

###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실무협의체 기업소개 자리서

### 참여 기업들 애로사항 전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최근 전북중기청에서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7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전북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협의체(제1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처음 열린 자리로써, 지난 7월 제5회 전북중소기업 지원협의회로부터 애로기업에 보다 체계적·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북중기청이 여러 차례 지원기관 실무간담회 및 조정·협력을 거친 후 지난 10월 제5회 지원협의회에 보고되면서 새롭게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지원기관 실무협의체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지원협의회 종료 후 10일 이내 개최(월1회)해 일시적 어려움에 있는 유망기업(3~4개)을 대상으로 지원기관 합동 애로접수 창구 역할과 기관별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 업무를 한 자리에서 일관화·체계화하고, 협업 활성화로 정책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의 주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체 기업소개 자리에서는 글로벌청년벤처협회 소속 회사(청년기업)로서 건조 바지락살 가공 판매 업체인 대풍수산(대표 한승우), 황토가마에 구운 두부 제조 판매업체 '라라스팸' (부대표 황이진), 그리고 차약코팅 일회용 칫솔 제조업체인 '에스씨유' (대표 김건우)가 참석해 회사 소개와 기업별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 농진청,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별 보급

### 전북 등 전국 7개 사업장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낭충봉아부패병(토종별유충백색곰팡이)에 저항성 있는 새로운 토종별 개발을 마치고, 올해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증식한 신상품 토종별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별 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2009년 첫 발생 이후 2년 만에 전국 토종별의 75%가 폐사되는 피해를 가져왔다. 신상품 토종별은 2017~2018년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현장실증시험과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과 발골 채밀량이 우수함이 확인됐다. 또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저항성 신상품은 유충 체내에 바이러스가 잠복하더라도 질병의 발

### 삼례시장 청년몰 개장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8월에 선정한 삼례시장 청년몰이 그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장 2층에 문을 열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8일 삼례시장 2층 유희공간에 311평 규모의 청년몰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장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전북중기청, 완주군, 전북도의회, 시장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년몰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 테이프커팅, 경품 이벤트 등이 거행됐다. 조성된 청년몰은 식음료 업종 4개, 공예 및 일반스토어 6개, 공용점포 2개 등 총 12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

병 및 일반 토종별에 전염을 유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7개 지역 신기술보급시범사업장에 원종을 분양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월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병해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7개 농가에서 증식된 신상품 토종별을 기반으로 21개 지역에서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토종별 보급과 토종꿀 생산 기반 복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남성희 팀장은 "시범사업 추진으로 신상품 토종별을 전국에 보급해 질병 없는 토종별을 키우고 고품질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며, 콘서트홀과 북카페형 휴게공간 등 고객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방문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삼례시장은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4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7억원을 지원받아 지상2층, 2,773㎡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현재의 형태로 조성됐다. 2018년 8월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15개월여 만에 2층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최초 신혼희망타운 개관

완주삼봉 A2 모델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내달 12~14일 청약 진행  
분양계약은 내년 3월 초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총 820호 중 신혼부부 등 대상 546세대) 모델하우스를 28일 완주삼봉지구 현장에 개관하고,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청약 및 자격검증 등은 12월 12일부터 2일간 진행되며 분양계약은 내년 3월 초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A2블록은 전북지역 최초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3.3㎡ 기준 23py), 전용 59㎡(3.3㎡ 기준 25py)로 건설되어 타 지역 신혼희망타운에 비해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완주삼봉지구는 전주 인접지역으로 전주와 익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 호남고속도로, 남측 익산-포항고속도로, 10km 이내 산업단지 9개,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사업지구 내에 공립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가 있는 등 접근성 및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단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 종합보육센터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의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알파룸 등 공간유선의 선택폭을 넓혔으며 불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및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IOT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 세대 남향 위주 주동매치,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원패스 출입 시스템, 스마트 우편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지하주차장 100%, 지상공공 공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을 연계 지원한다.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A2블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www.lhshwong-a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완주삼봉지구 모델하우스(063-230-1700)와 LH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9)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LH 전북지역본부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28일 완주삼봉지구 현장에 개관하고,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개공, 마이산 조망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농간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북 동부권인 진안군에 총 100세대(전용44㎡50, 59㎡50)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진안 에코코의 임대조건(임대료와 월임대료)은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취지와 진안군 재정지원 등을 감안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하였으며 계약 체결시 표준과 전환중에서 임차인들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전용 44제곱미터(㎡) 표준조건은 임대보증금 2027만1000원에 월 임대료 14만7000원이고, 전환조건은 임대보증금 4054만2000원에 월 임대료 92천원이다. 전용 59제곱미터(㎡) 표준조건은 임대보증금 3115만1000원에 월 임대료 17만5000원이고, 전환조건은 임대보증금 6230만1000원에 월 임대료 9만2000원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진안 에코코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진안군청, 진안경찰



서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고 진안시장이 근접해 있는 등 독립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진안에코코 신청자격은 소득, 자동차 보유가격, 부동산 등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9일부터 전북개발공사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파트(063-280-7411 ~ 74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기계 제조업체 현장 방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27일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주)보트텍(대표자 황수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근 본부장과 황수웅 대표는 업체의 주력 상품인 슈퍼제비보트를 시연하고 농업·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보트텍은 농업용 원격 조종 보트인 슈퍼제비보트를 제작하는 업체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기계 제작 분야에서 지

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보트텍의 주력 제품인 슈퍼제비보트는 미생물·제조제 살포 원격 조종 보트로 3분 만에 1,200평 규모 경작지에 살포가 가능해 기존 방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작업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 손쉬운 사용방법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 전북 농생명 바이오소재산업 혁신 전략 심포지엄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전북 농생명·바이오소재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하고자 28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농생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에 개최한 "전북 농생명 연구개발 전략세미나(주제: 전북 미래 농생명R&D 추진방향)"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의학연구원 김종렬 원장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소재산업 혁신전략'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경기도경제과혁신지원 김관수 센터장,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 및 대전대학교 현병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전북대학교 양문식 명예교수(좌장)의 주제로 농식품부 안형근 연구관, 한국바이오협회 박성호 상무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철호 박사 등이 참석해 전북 농생명·바이오소재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윤상 기자

## 전은 창립 50주년 기념 '문화가 있는 날'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7일 본점 3층에서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에 관심 있는 도민과 청소년 300여명이 참석해 제16회 '2019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했다.

전북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팀을 선정해 2015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보컬그룹 스위트소로우와 함께하는 이아기가 있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히트곡과 음악 이야기, 그리고 관객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꾸며져, 관람하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와 관객이 직접 호흡하고, 거리감을 좁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스위트소로우의 객석으로 찾아가는 팬서비스와 재미있는 입담으로 공연이 약속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끝났지만 관객들 모두 자리를 지켰고, 공연을 마친 후에는 사진을 요청하는 관객들을 빼놓지 않고 함께 촬영해주며 마지막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선보였다. /김윤상 기자



## 하림, 'P플러스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 특별 이벤트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피플러스(P플러스)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가 연말 다이어트족을 겨냥해 다시 한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7일 NS홈쇼핑에서 첫 런칭한 '피플러스 다이어트 프로틴 밸런스'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바탕으로 한 고단백 다이어트 간편 대용식을 내세워 방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주)하림은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말 회사 시즌을 앞두고 고인해결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12월 1일 오후 11시 50분 NS홈쇼핑에서 선보이는 피플러스 2차 방송을 통해 생방송 구매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 다이어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예정이다.

피플러스 제품은 체중 조절 시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영양과 저칼로리를 잡은 고단백 다이어트 대용식이다. /익산=장영희 기자